

x 상을각각 인종차별;

(반박이 많은 지양 권)

x 사회인종차별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한국 비정부기구 참가단

기자간담회

과연 한국 사회에
 인종문제가 없는가?
 일본 역사교과서,
 식민주의 과거청산...
 한국 비정부 기구 참가단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2001년 8월 21일(화) 이른 11시
 철학마당 느티나무

한국 비정부기구 준비모임 일동

;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여성인권연대(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구미 가톨릭 근로자센터,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인권운동
 사랑방,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한국 비정부기구 준비모임 소개 및 준비상황

○ 준비모임 결성 배경 :

: 99년 말부터 세계의 엔지오들은 WCAR을 준비해왔지만 한국은 올해 중반, 즉 WCAR의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번 회의를 준비하게 되었다. 준비 초반부터 결합하지 못하고 더구나 WCAR의 존재조차 모르는 상황에 대해, 한국의 인권단체가 국제적인 인권문제에 소홀하다는 것과 한국사회의 인종차별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모임이 결성되었다. 준비과정에 긴밀하게 결합하지 못해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을 인정하고 세계대회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문제를 부각시키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 참가단체 :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여성인권연대(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구미 가톨릭 근로자센터,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 경과과정 :

- 5/22 1차모임 : 모임 결성
- 6/20 2차모임 : 한국의 이주노동자, 난민문제에 대한 내부 세미나
- 7/18 팍스로마나 이성훈 사무국장 초청 간담회
 - WCAR의 의의와 한국엔지오의 역할 (이성훈, Pax Romana 사무국장)
 - 인종차별 시각으로 접근한 이주노동자의 인권
 - 인종차별 시각으로 접근한 난민의 인권
- 8/14 3차모임 : 현지출국 준비

○ 참가단의 현지활동 개요

1. 청년포럼, 비정부기구 포럼, 정부간회의등 전과정 모니터 (특히 이주노동자, 난민, 트래피킹 부분)
2. 이주노동자, 난민관련 비정부기구들과의 연대활동, 로비활동
3.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에 대한 시위계획 :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결의문을 작성, 세계 비정부기구 활동가들의 서명작업, 일본정부 대표단에 결의문전달,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 보고대회

9월26일(예정)경 참가단의 보고대회가 있을 예정이며 더반의 전과정을 모니터한 자료집이 발간될 예정이다.

미리 보는 WCAR

- 주요쟁점 -

■정식대회명칭 :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WCAR

■대회장소 :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Durban)

만 2년의 긴 준비과정 끝에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는 선언과 행동계획에 들어갈 주요한 문구를 합의하지 못한채 그 개막을 앞두고 있다. 준비과정에서 국가간, 국가와 엔지오들의 첨예한 대립을 계속해왔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이면에서 쟁점들이 타협이 되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예를 들어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을 제기하고 있는 아프리카, 아시아국가등이 국제경제에서의 '무엇'을 받기로 합의하고 마치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쇼를 한다는 것이다.

진위 여부를 차치하고도 유엔이 가지는 한계, 유엔회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짐작하게 하는 말이다.

선언과 행동계획을 둘러싸고 2년여 동안 무수히 많은 논쟁이 있어왔지만 중요한 것은 선언과 행동계획에 삽입되는 '유엔의 아름다운 공식언어'가 아니라 현실에서 인종차별에 신음하는 이들의 투쟁과 함께하고 현실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극복할 실천일 것이다.

1. 선언에 들어갈 희생자 순서 (ranking of victims)를 둘러싼 논쟁

: WCAR의 결과물로 채택될 선언에 희생자 순서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경제선진국들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협약과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라틴아메리카, 유럽연합, 아시아국가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철저한 명시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프리카인과 그 후손들, 원주민, 이주민, 난민등이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으며 성적소수자들과 장애인들도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2.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및 보상문제

: WCAR를 둘러싸고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 문제를 놓고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시해 과거 식민통치를 경험한 국가들은 선언에 명확하게 "사과(apology)"를 표현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할 것과 과거 식민지, 노예제를 통해 이득을 본 나라들이 외채를 탕감하고 경제발전 구제책을 통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유럽연합과 미국은 "사과(apology)" 라는 표현을 쓰는 것조차 이후에 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며 단지 "깊은 유감" 혹은 "깊은 반성"이라는 단어를 쓸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인종주의로서의 Zionism(유대교) 명시 문제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반세기가 넘게 유엔의 주요한 안건중의 하나였고 또한 해결이 요원한 과제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역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한축으로 이슬람국가연합을 한축으로 팽팽한 대결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인종주의로 표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회의에 철수, 불참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WCAR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메리로빈슨은 "유대교가 인종주의가 아니다. WCAR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WCAR를 위협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발언의 진위를 둘러싸고 많은 추측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은 미국의 정치적 압력과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재정지원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라는 설이 유력하다.

4. 원주민

: 원주민들의 인권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만큼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WCAR은 원주민의 영문표기를 "indigenous peoples"로 할 것을 합의했지만 각주에 "이 용어는 국제법상 법적인 용어는 아니다"라는 주석을 달아 법적인 보상과 책임을 피해가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5. 이주민 (migrants)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90년에 제정된 이래 10여년이 넘는 지금까지 16개국만이 비준을 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 것을 보더라도 국제사회, 특히 송출국들이 이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주민,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이렇듯 흐름은 이번 준비회의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미등록된 이주자, 비정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주자의 보호를 명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서 미국은 "등록된 이주자"만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에 대한 문구도 아직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엔이주노동자조약 비준을 강력히 촉구하기 보다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선언에서 누락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6. 난민

: 현재까지 난민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아프카니스탄, 아프리카 난민등 난민문제를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는 자국의 경제, 정치적 부담으로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의 문제

브라질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이 문제는 로마교황청(Holy See)도 지지를 해 놀라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디아등 종교적으로 엄격한 나라들의 반발이 심해 WCAR 본회의의 참여한 문제의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8. 인종차별 시스템 -카스트 문제

남아시아의 달리트(Dalits), 일본의 부라쿠민(Burakumin), 나이지리아의 오수(Osu)등 카스트 문제역시 해당 국가의 필사적인 반대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인도 정부는 카스트 문제를 선언과 행동계획에서 철회하기 위해 반대캠페인을 가장 적극적으로 벌리고 있는 가운데 행동계획 실무분과에서는 카스트 문제를 괄호-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없이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카스트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공식문서에 카스트문제가 기재되기는 이번이 최초라서 이를 두고 엔지오활동가들은 "역사적인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본 회의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많은 엔지오들은 이 "역사적인 성과"를 방어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모든 인종차별주의에 대항하는 세계 대회, 세계화 식민주의 등 다양한 쟁점 논의.

* 이 내용은 지난 7월 18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있었던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준비를 위한 간담회' 가운데 파스 로마나 이성훈 사무국장의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의 의의와 한국엔지오의 역할'이라는 발제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1.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개요

올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전세계 정부·비정부기구들이 한데 모여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공식 명칭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WCAR)를 연다. 이 행사는 유엔에서 주관하는 행사며 사무총장은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맡았다. 97년 52차 유엔 총회에서 "2001년에 세계인종주의차별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신의 나라에서 그 대회를 열 것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치러지게 되는데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치러지는 비정부기구(NGO) 포럼과 9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리게 되는 정부간 회의가 그것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를 마치며 '선언'과 '행동강령'을 채택할 예정이다. 대회개최 결의 이후로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아프리카지역으로 나뉘어 지역 회의를 가져오면서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채택할 선언과 행동강령을 각기 준비해왔다.

대회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번 대회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인종혐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불관용'이라는 주제를 갖고 '평등(equality), 정의(justice), 존엄(dignity)'을 구호로 내걸었으며 모든 유엔 가입국이 참가하는 21세기 첫 대회다.

유엔에서 인종차별 선언은 1963년 제정됐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65년에 만들어져 69년 발효됐다. 한국은 78년에 이 협약을 비준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전문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인종, 피부색 또는 출생지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하지 않고 선언에 언급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구나 향유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음"을 밝히고 "식민지 및 그 국민에 대한 독립 부여에 관한 선언"에서 밝힌 식민주의가 신속히 무조건 종식시켜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며 "인종적 장벽의 존재가 어떠한 인류사회의 이상과도 배치됨을 확신"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전문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채택한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협약'까지 언급하며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을 철폐할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처럼 인종차별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피부색'이나 '국적'등에 의한 차별과 같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유엔은 자신이 천명한 인종차별철폐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73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30년 동안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10개년(Decade for Action to Combat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으로 선포하고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기간동안 78년과 83년 스위스 제네바에 두 번의 인종차별철폐대회가 열렸다. 두 번 열린 대회에서의 주요 안건은 다름 아닌 남아프리카공화

국에서의 '아파르헤이트 정책'이었다. 당시만 해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종차별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남아공화국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만델라 정권이 들어서고 아파르헤이트 정책이 붕괴된 93년 이후 다양한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인종차별 쟁점들이 부각되기 시작됐고, 93년에 유엔은 '인종차별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했다.

인종차별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은 전 지구적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90년대 들어 열린 세계대회는 '아동·환경·인권·인구·사회개발·여성·주거·식량·평화' 등과 같은 주제들뿐이었다. 정작 인종차별에 관한 대회는 열리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인종차별이라는 쟁점 자체가 이성적으로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과 '과거 식민주의 청산'과 같이 감성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쟁점들이 뒤섞여 있는 데 그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2.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

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수많은 인종차별 관련 쟁점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다뤄질 그 쟁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계화에 따른 인종차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벌어지고 있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세계화'는 지구를 인종차별 박람회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혹자들은 이런 현상을 빗대어 "세계화는 세계의 재식민화", "인종주의화 된 세계화", "지구화된 아파르헤이트" 등으로 꼬집고 있기도 하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상을 살펴보면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가난한 3세계는 자본을 착취당하며 유색인종과의 갈등은 증가하고 결국 인종주의는 증가한다. 세계화는 인종차별 철폐라는 거대한 흐름에 제일 화두다.

② 과거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보상 문제

인종차별철폐협약 전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민지배의 종식'은 인종차별 철폐 정책에 큰 주제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예제도로 이익을 챙겼던 나라들이나 식민지배를 통하여 '민족학살', '경제 수탈'을 자행했던 국가들은 과거 자신들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 말을 명확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과거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현재 일본 정부의 자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쟁점은 '배상·보상'과 같은 물질적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과거 청산'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쟁점이다.

아시아지역과 아프리카지역 정부·비정부기구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는 '과거 서구·일본 등의 식민지배에 대한 청산 요구'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식민지시대 일제만행을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는 등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돼있다.

③ 인종 청소(ethnic cleansing 또는 ethnic conflict)

종교적·민족주의적 불관용으로 인해 대규모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부룬디, 르완다, 코소보, 동티모르' 등을 이 쟁점에 대한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피부색이나 국적의 차이가 아닌 한 나라 또는 한 종족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관용'에 대해서도 유엔은 분명하게 인종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④ 이주노동자 문제

거대 자본이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모든 국경을 철폐하고 있다. 자본은 이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에게도 자유로이 옮겨 다닐 수 있다. 이에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이나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고 있다. 그러나 '낯선 타국인'이 생존을 위해 들어간 나라에서는 외국인을 '일자리 뺏으러 오는 나쁜 사람' 등으로 매도하며 혹은 이유 없는 '외국인혐오증'으로 이들을 억압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된 이주노동자 문제는 이번 대회에서 4대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를 만큼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밖에 쟁점으로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에이즈, 원주민 문제, 집시 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이의 오래된 분쟁도 이번 대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국은 ▲현상·형태·원인 파악 및 분석 ▲희생자 조사·탐구 ▲예방·교육·보호 조치 마련 ▲구제 방법 및 계획 수립 ▲국제협력 행동전략을 의제로 삼아 논의하고, 대회를 마치면서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구체적 '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3. 이전 대회와 다른 점

이번 대회 참가국들은 퍼져있는 인종차별 현안에 대해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화에 따른 인종차별·과거 식민주의 청산'이라는 쟁점은 각 국 정부들의 이해에 따라 첨예한 대립을 낳고 있다.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형화된 남북 구도가 붕괴했다. 과거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로 단순화 시켰던 도식들이 붕괴하고 있다. 오히려 현재 세계는 동양-서양간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중심 세계인 서양과 비교해 다종교 사회인 동양 문화가 대립항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또 하나의 축은 지정학적으로 대륙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과 갈등하고 있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로서 지금까지 철옹성이나 다름없던 인권에 대한 서양 중심의 우월주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심지어 아프리카대륙과 같은 경우, 과거 정부와 비정부기구간에 있던 대립구도가 깨어지고 '과거청산'이라는 구호 아래 연대점을 찾고 있기까지 하다.

그래서인지 서구 주요 비정부기구들이라 할 수 있던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큼직큼직한 단체들이 이번 대회에서 교환되고 있는 중요 논의에 참가하고 있지 않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인종주의가 인권의 문제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다뤘던 쟁점들에 대해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세계 각국 정부, 비정부기구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자세(방어 또는 공격)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 '인권' 사안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부딪히고 있다. 이런 상황은 참가국들을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가와 제3세계 국가', '과거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국가'간에 '가해국 대 피해국'이라는 구도까지 그려지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가해국' 위치에 있는 정부들은 애써 현안을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제적 비정부기구와 지역적 비정부기구들 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국제적 단위의 비정부기구들은 이번 대회에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적 비정부기구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쟁점이 중요한 무게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영향력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이런 대회에 참가 경험이 적은 것 등 실무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듯 하다. 이러한 지역적 비정부기구들은 자신들의 쟁점에 관한 사항들을 유엔 공식문건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손꼽힌다. 이른 바 '터널 비전(tunnel vision)'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다양한 쟁점들이 혼재함에 있어 이를 통합하고 조율할 물리적 시간과 전망이 없는 데서 기인한다.

4. 대회에서 갖는 비정부기구들의 역할

이번 대회의 참석 주체는 비정부기구와 정부간 기구가 된다. 하지만 유엔이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상 실질적으로 모든 결정은 정부간 기구 회의에서 정해진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비정부기구 참석자들은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비정부기구들의 역할은 본회의를 진행하는 정부간 기구들을 감시하고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역할로 한정되고 만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펼칠 수도 있다.

비정부기구들이 이런 정부간 회의에 참가하는 형태로 그 성격을 분류해보자면,

- ① 참관 : 정부간 회의에 참가하는 비정부기구끼리 만나는 데 의의를 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보통 준비가 많이 안된 단위가 벌이는 활동으로 비정부기구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대회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여러 가지 다양한 쟁점과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주로 하게 된다.
- ② 문제 제기 : 자기의 쟁점을 가지고 참가하는 형태다. 자신들의 쟁점을 다른 나라에 알리고 그 문제점과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참가 주체들에게 호소력을 높여 홍보할 준비가 돼있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는 활동 형태다.
- ③ 로비 : 치밀한 활동 계획이 필요한 활동 형태다. 궁극적으로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될 행동강령과 선언에 자신들의 주장이 담기게 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활동하게 된다. 원하는 목적에 대한 수위가 높은 만큼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지지하는 국가와 반대하는 국가에 대한 분석, 사전 홍보활동, 정부대표단에 대한 접촉력 등이 활동 결과의 성패를 가름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
- ④ 정부대표단 일원이 되는 것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비현실적인 활동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캐나다와 같은 경우 이러한 형태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 단위가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간 회의에 교류되는 '고급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겨레21

www.hani.co.kr/h21

기사섹션 : 움직이는 세계

등록 2001.09.12(수) 제376호

[움직이는 세계] 카스트제도는? 이주노동자는?

인권 대신 정치가 판을 친 더반 회의장...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3차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WCAR)가 노예제와 식민주의를 반인도주의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하기로 합의하고 막을 내렸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스라엘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양쪽의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는 '중도적' 입장에서 타결됐다. 폐막 예정일을 하루 넘긴 다음날 9월8일 새벽 극적으로 이루어진 타협은 협상의 주된 당사자였던 유럽연합, 아프리카 및 아랍국가들이 회의 주최국 남아공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졌다.

비록 막판 극적 타협을 통해 파국을 면했지만 애초의 기대와 달리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 곳곳에 만연한 인종주의 관련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지 않은 정부대표단과 비정부기구(NGO) 참가자들은 실망하여 이미 더반을 떠난 상태라 이번 합의의 정치적 효과가 더욱 의문시되고 있다.

노예제에 도덕적 차원의 사과

이번 회의의 공식 명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제목이 긴 만큼 의제는 광범위했고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었다. 지난 78년과 83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두 번의 회의는 인종주의와 인종차별문제, 특히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와 팔레스타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94년 아파르트헤이트가 공식적으로 철폐되면서, 유엔은 그동안 아파르트헤이트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자 논란이 된 문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닌 지난 400년의 '과거청산', 즉 서방국가에 의한 아프리카의 노예제, 노예무역, 식민주의 등에 대한 사과와 배상, 그리고 세계평화의 '아킬레스건'인 팔레스타인 문제였다.

노예제와 식민주의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문제이지만 유엔 회의의 공식 의제로 다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듯, 노예제와 식민주의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회의준비 과정에서 쏟아져나왔다. 최대 피해자인 아프리카 국가들은 노예제와 식민주의를 반인도주의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국가들과 이득을 얻은 국가들의 공식적인 사과(apology)와 이에 따른 적절한 배상(reparation)과 보상(compensation)을 주장했다. 게다가 아프리카 국가들은 "노예제와 식민주의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아프리카 대륙 대다수 국가가 겪고 있는 종족갈등, 내전, 가난 등의 정치경제 위기의 역사적 및 구조적 원인이다"고 주장하면서 배상문제를 서방국가의 재정지원과 외채탕감문제와 연관시켜 논의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노예제와 식민주의가 아프리카에 끼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인정하지만 이에 대해 현대적 개념인 반인도주의 범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리이다"라고 전제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공식적 사과는 어렵다"는 공식적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유럽연합은 "사과를 할 경우, 이미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듯이, 사과가 지닌 정치적 법적 효과를 이용해서 노예제의 피해자 후손들이 집단적으로 유럽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한국과 일본의 식민지 '과거청산'과 같은 논리구조를 지닌 이 문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긍심과 감정이 개입된 민감한 문제였다. 결국 협상의 결론은, 유럽연합이 사과는 하되 '법적·정치적 의미가 아닌 도덕적 차원에서의 사과'를 하고 도의적 차원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발전 계획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회의의 지뢰, 시오니즘 문제

노예제와 식민주의가 이번 회의에서 태풍의 눈이었다면 팔레스타인 문제는 지뢰였다. 사실 중동문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7월 미국이 중재한 평화회담이 결렬되고 그 여파로 폭력사태가 지금처럼 확대되자 83년의 2차 회의 때처럼 팔레스타인 문제로 이번 3차 회의가 '공중납치'(hijacked)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를 심각하게 우려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개막연설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위기와 배상문제로 이번 회의가 '탈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특정 국가를 지목한 상호비난으로 이번 회의가 얼룩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개막 직전에는 “아랍 국가들이 시오니즘을 인종주의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노예제와 식민주의에 대한 배상과 보상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비공식 합의 소식이 퍼지면서 이번 회의의 결과에 대한 낙관적 견해가 한때 유포되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기초연설에 나선 대다수의 아프리카 정부 대표들은 강한 어조로 노예제와 식민주의에 대한 공식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였고,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지역 군사점령과 통치를 인종주의이자 ‘새로운 형태의 아파르트헤이트’로 비난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국시와도 같은 시오니즘을 인종주의로 규정하고 이스라엘 군대에 의한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을 ‘종족청소(Ethnic cleansing) 또는 대량학살(genocide)’로 강하게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NGO 참가단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 진행된 NGO 포럼 기간중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시위대간의 충돌이 생겨 경찰이 동원되기까지 했다. 게다가 이번 회의의 사무총장인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NGO 포럼 마지막날인 9월1일 채택된 78쪽에 달하는 NGO 선언과 행동계획 문서가 “시오니즘을 인종주의로 규정하고 있고 대량학살(genocide)이란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처음부터 팔레스타인 문제가 인종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며 이번 회의의 의제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해온 이스라엘과 미국은 우려한 대로 반이스라엘 분위기가 전체 회의를 지배하자 결국 회의 개막 3일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애초에 회의 불참을 모색하다가 국내외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대표단을 파견한 부시 행정부로서는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노예제 배상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좋은 핑곗거리를 얻은 셈이었다. 미국에 비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하던 유럽연합은 미국이 철수하자 다시 강경입장으로 선회했다. 게다가 “유럽연합도 곧 회의에서 철수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면서 회의의 파국을 전망하는 비관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회의 실패에 따른 정치적 책임론이 곳곳에서 거론됐다. 주최국 남아공은 당황하고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타보 움베키 대통령이 다시 더반으로 돌아와 유럽연합과의 비공식 협상에 직접 나섰다. 결국 주최국 남아공의 체면과 명분을 살려주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파국을 막는 데 기여한 셈이다.

“미국은 모든 명분을 잃었다”

회의의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은 도덕적 명분,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적 명분을 얻은 반면 미국은 도덕적, 정치적 명분 모두를 상실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은 크게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는 평균적 정도라고 한다. 특히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철수함으로써, 교토 기후협약 거부사건 이후 다시 한번 세계지도자로서의 도덕적 위상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정부간 회의 기간중 소수자집단(minorities), 원주민, 장애인, HIV/AIDS, 여성, 난민, 사법행정 등의 주제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번 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부각시켰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나이지리아에 노예로 팔려간 10대 소녀, 코소보에서 강간당한 여성 피해자, 에이즈환자 등의 사례를 ‘피해자의 증언’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부간 협상에 피해자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했듯이 노예제와 식민주의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전체 회의 분위기를 지배하면서 정작 이번 회의가 원래 다루고자 했던 다양한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문제가 제대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 일부 NGO 참가자는 “대다수 정부가 자국 내의 인종주의 관련 인권문제를 이번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호도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두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고 ‘남용’했다”며 일부 국가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간 협상의 난항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NGO들은 남아시아의 달릿(Dalit), 짐시로 알려진 유럽의 로마(Roma), 전세계 곳곳에 강제로 흩어져간 아프리카 후손(African Descendants), 이주노동자, 난민, 인신매매 범죄피해자, 원주민 등의 문제를 주된 지구적 의제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NGO 포럼 마지막날인 9월1일 채택된 78쪽에 달하는 NGO선언과 행동계획 문서에는 전세계 곳곳의 인종주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담겨져 있다.

인도 전역에서 온 300여명의 달릿(산스크리트어로 ‘짓눌린 민중’이란 뜻) 참가자들은 증언, 세미나, 시위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홍보하여 이번 회의에서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약 2억 6천만명에 달하는 달릿은 불가촉천민(untouchable)이란 말이 나타내듯이 인도의 신분제도인 카스트제

도의 최대 피해자로 가장 극심한 사회적 천대와 착취를 당해왔다. 회의 폐막 이틀을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예수마리안 신부는 “우리 달릿은 이제 3천년 동안의 침묵과 굴종을 깨고 인간으로 대접받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유엔의 최종 선언문과 행동계획이 달릿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세계 인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존립근거를 상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section-0210.../p021019000200109120376027.htm> 01-10-05

노예제와 식민주의 및 팔레스타인 문제 다음으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된 카스트제도 문제는 행동계획 초안 73번에 '직업과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다소 광의의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달릿 대표단과 주요 국제 인권 NGO로 구성된 로비팀의 적극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비에 막혀 이 표현문구가 포함된 항목은 마지막날 채택되지 못했다. 달릿 참가자의 실망과 허탈감을 의식한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의 달릿 문제 수석연구원인 스미타 나올라는 "73번 항목의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회의에서 달릿과 카스트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등장한 것 자체가 달릿운동이 인도 정부에 판정승으로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제무대에서의 달릿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본, 교과서 왜곡에 침묵으로 일관

한국 정부는 한명숙 여성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여러 명의 제네바와 서울의 외교부 인권담당 외교관이 참여하였다. 한 장관은 9월1일 정부대표 발언에서 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일본의 나라 이름까지 거명하면서까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일본 정부는 반박권을 행사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대신 나중에 일본 정부의 대표 발언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한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과거사에 대해 깊은 후회와 유감(deep remorse)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2차대전과 관련한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 정부의 신길수 참사관은 이에 대해 "일본이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반박권을 행사했을 경우 자국의 역사교과서 문제가 이번 회의의 쟁점으로 부각할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노총 산하의 평등노조와 인권운동사랑방 등에서 파견된 5명의 한국 NGO 대표단은 NGO포럼 기간중 행사장에 이주노동자 보호 국제협약을 한국 정부가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한국의 이주노동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리고 본회의 기간중 일본 NGO와 함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비판하는 시위를 조직했다.

더반=글·사진 이성훈 통신원 almolee@yahoo.com

<http://www.hani.co.kr/section-021019000/2001/09/021019000200109120376027.html>

The Internet Hankyoreh copyright(c) webmaster@news.hani.co.k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XXXXXXXXXX **True measure of work at Durban will be difference** XXXXXXXXXXXX
it makes in lives of victim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ells closing of
Anti-racism Conference

8 September 2001

Madame Chair, Distinguished Delegates,

It has been an exhausting nine days for all of us very long way. Many questioned whether it would be possible to reach consensus but we have succeeded and that is no small achievement.

I pay tribute to the delegates who have had to deal with a difficult process but who have not been deterred from the goal of making a breakthrough in Durban.

I do not claim that this Conference has solved the proble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but the problems have been addressed~~. ~~When issues have~~ been addressed, not answered. But we have a framework. We have made a start and that is what counts. The true measure of our work will be whether it makes a real difference in the lives of the victims of racism and discrimination.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Middle East has played such a prominent part during the preparations for Durban and in the discussions here. Nobody could be unmoved by the human tragedy which continues unabated in the region. After my visit there last November I reported my impression of two peoples who are linked by history and geography, but are currently separated by a wide and growing gap in their perceptions of each other. The violence has resulted in a hardening of positions, with little willingness on either side to understand or accept the narrative of the other. The main conclusion I drew - that the only path to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s through peaceful negotiation, which calls for courage and responsibility on the part of the leadership of both sides - remains valid and is even more urgent today.

The past has been very present in Durban. The text adopted on the past is historic in that it sets out the issues in plain, unequivocal language for the first time in a document of this kind, agreed to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language on the past will resonate throughout the world and especially among those who still bear the scars. That is a major achievement of which all of us should be very proud.

I welcome the inclusion of language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mmitment to integrate developing countries into the global economy and to resist their marginalisation. I welcome, too, the support expressed for the New African Initiative. The New African Initiative proclaims that African leaders are making a commitment to the African people and the world to work together in rebuilding the continent.

While the main focus of attention has been the intensive negotiations on text it is far from being the whole picture of Durban.

What I have seen this week is a Conference that has taken place at different levels. For the first time, the world in all its rich variety has gathered to discuss the range of forces that threaten diversity. Durban has given a voice to the excluded and the marginalised.

We heard the voices of young people: Roma children, young Latin American people of African descent, young people who have experienced slavery, young indigenous people. They impressed and touched us with their accounts of what it feels like to be on the receiving end of racism and discrimination. But they gave us hope, too, in their determination to rise above these abuses for their own sake and for the sake of the next generations.

Durban has put the gender dimension of racism on the map. The linkages between gender, racism and poverty were clearly shown and the urgent need to tackle this dimension emphasised. We learned more about the intersection between health, stigma, racism and discrimination in the seminar on HIV/AIDS, and about racism and development in the panel organised by UNDP. Our understanding was deepened by publications such as UNESCO's book of articles and standard-setting instruments entitled "United to Combat Racism", the report on International Migration, Racism and Xenophobia jointly prepared by my Office, the IOM and ILO and by the gathering of academic experts organised by UNRISD on Racism and Public Policy.

At the Voices Forum there was proof of the global nature of racism as we listened to moving stories of discrimination from every part of the world.

The main message I would like to leave you with is that Durban must be a beginning and not an end. There must be follow-up. The documents we have

agreed here will be meaningless unless governments act on them. Civil society must work as allies of governments in this task and must ensure that the commitments entered into here are honoured.

I take heart from the new alliances I saw taking shape in Durban: the role that parliamentarians can play was highlighted by the Inter-Parliamentary Un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sent us a powerful expression of their determination to play their part; the Treaty Bodies and Special Mechanism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played an active part; the vital role of the media and the private sector in combating racism was emphasised. And I believe that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will go away with a renewed resolve to integrate the Durban agenda into their activities. I am relying on civil society to take up the torch from this Conference and carry it forward.

I welcome the recommendations of this Conference in regard to follow-up by my Office and me and look forward to the cooperation and support of governments in implementing this.

We now have a series of concrete recommendations - for national plans and programmes, for better treatment of victims, for tougher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measures, for universal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ICERD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for strengthening education (a most important area), for improving the remedies and recourses available to victims, and many more. These are where our attention should now be concentrated. This is the work we have to do.

Madame Chair, Distinguished Delegates,

There are many people who deserve thanks and I would like to mention some of them. I wish, first of all,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South Africa for the arrangements which were made for us in Durban. The efficiency and good humour of those we worked with over the past fortnight were such as to make our work much easier and our stay in Durban memorable.

I thank President Mbeki for his solidarity with us during a very difficult week for him. Our thoughts are with him today.

I would like to say a special word of thanks to you personally for being such an excellent chair and to your colleagues who worked so unstintingly.

Among the delegations it would be invidious to single out individuals but I feel that I must put on record my appreciation to the Belgian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Louis Michel, who went that extra mile for the Con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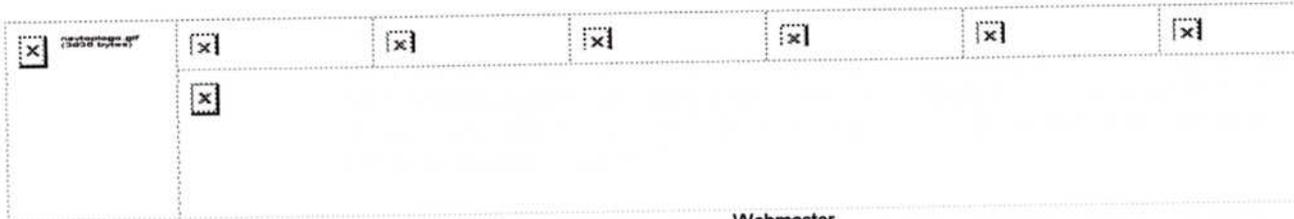
Tributes are rightly being paid to the regional coordinators, the chairs of the two working groups and the facilitators on difficult issues and I am happy to join in those. Without their tireless contributions, this outcome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I wish to pay tribute also to the many delegates who took on the task of sorting out individual issues as they arose. This, too, was vital work. Many delegates made substantive inputs to the debate which had a less visible, but no less important role in ensuring this successful outcome.

Finally, I pay tribute to all who supported the smooth running of the Conference, the interpreters, translators, press officers and editors and all the support staff here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e.

It has been, as I said, exhausting and I am sure that everyone will benefit from a break. But not for too long! There is plenty of work ahead of us.

Thank you.

[SITE MAP](#) | [SEARCH](#) | [INDEX](#) | [DOCUMENTS](#) | [TREATIES](#) | [MEETINGS](#) | [NEWSROOM](#) | [DATABASES](#)



Webmaster

>Speeches & Documents<

Statement to the Plenary by Deputy President Jacob Zuma, Durban, 2 September 2001



Speeches

The President of the conference
Distinguished delegates

It is an honour for South Africa to have been afforded this unique opportunity to host a United Nations conference of this magnitude and importance.



Conference Documents

The holding of this conference, aimed at ending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has a lot of relevance to South Africa given our own struggle against apartheid and institutionalised racism.



Media Releases

Having learnt from that painful experience, we have put in place mechanisms of ensuring that racism is removed from our statute books forever. We have a Constitution that lays a strong foundation as it enshrines and champions the cause of democracy, equality, liberty, development, justice, freedom and responsibility.



Newsletters

At the same time, although we have legislated against racism, it has not automatically disappeared from our communities and that is why we welcome the opportunity to be part of discussions about how to eradicate this demon from our daily lives.

We, therefore, approach and await the deliberations and the outcome of the conference with great expectation.

The challenges that face us as we gather here are immense. As a result, we need to rise above narrow national and group positions and begin to work as partners in order to facilitate consensus.

We also believe that the conference should not avoid confronting critical and difficult issues, in the hope that they will disappear. Most of these issues are critical to the resolution of fundamental problems in the developing world, which are rooted in our colonial and slavery past.

We want to argue that Conference should speak out on the linkage between past injustices and the causes of poverty, underdevelopment and marginalisation.

Honoured delegates, we meet here mindful of the untold damage caused by slavery and colonialism in the developing world. The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and the poverty, which ravages the developing world today, are deeply rooted in the history of slavery and colonialism. These inequalities in turn exacerbate racial divisions, discrimination and related intolerance.

In addition to this, the developing world has to contend with globalisation which brings with it both opportunities and threats. Unfortunately, the threats are more pronounced as they operate from a position of economic weakness. The huge gap between rich and poor, a by-product of the fast globalising world, continues to pose serious problems for the South.

The realization has dawned that these multi-lateral institutions need to be reconfigured as they were established at a time when most of us still enjoyed the status of colonies. Our interests were therefore not represented then.

We concur with the sentiment expressed b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ILO who he said recently that "we must have the will to make a difference to the path of globalisation. We must contribute to fair rules of the game and level playing field both people and countries."

Our position therefore is that this conference should champion the cause of the marginalized and emphasise poverty alleviation,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social justice, equity, human rights and democratic values, both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should also address other negative tendencies and intolerances such as the rise in child labour, slave labour and gender discrimination, including the caste system.

Included in this is the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living with HIV/AIDS and other infectious diseases. The rise in xenophobia in most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South Africa, is also cause for concern. In our country, apartheid isolation inculcated suspicions of people from outside of our national borders.

Again, we expect this conference to frankly discuss this issue and come up with concrete recommendations about how to deal with negative perceptions about immigrants, refugees and asylum seekers.

Ladies and gentlemen, the ultimate challenge will be how to make the outcome of the conference bring about meaningful change. The final conference document should lay a firm basis for a practical, forward looking and action-oriented approach in the implementation of our programme of action against the scourge of racism.

The document should be used as a living instrument within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quality and nature of the outcome document should unite the world community to take concerted action. It is also important to ensure a sense of ownership and commitment to the outcome.

We also believe tha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of Action, the focus should also be on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remedial programmes, to reverse the effects of the legacy of colonialism and slavery. In this regard the New African Initiative can serve as an innovative mechanism to achieve concrete actions and results.

The programme is aimed at ensuring among other things:

- The eradication of poverty;
- Ensuring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 Promotion of peace, democracy, human rights and sound economic management.

Through the programme, we are attempting to deal with the legacy left by centuries of oppression and exploitation, and to provide an African response to globalisation. Similar programmes addressing special needs of other regions could form the basis for remedial measures.

The task before us, therefore, is to ensure that meaningful progress is made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a breakthrough in the fight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Brothers and sisters, by implementing the programme of action and declaration that will emerge from this Conference, we will be ensuring that this new Millennium becomes one in which we place value on people not because of their race, colour, creed or status in life, but because of their status as human beings.

Madame President the preamble to our constitution captures the values of our country which we have fought to achieve and I quote;

"We the people of South Africa,
Recognise the injustices of our past;
Honour those who suffered for justice and freedom in our land;
Respect those who have worked to build and develop our country;
and
Believe that South Africa belongs to all who live in it, united in our d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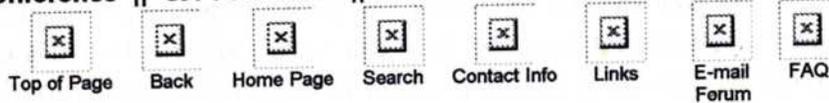
We therefore, through our freely elected representatives, adopt this Constitution :
the supreme law of the Republic so as to -

Heal the divisions of the past and establish a society based on democratic values
social justice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Lay the foundations for a democratic and open society based on the will of the
people and every citizen is equally protected by law.

I thank you!

About the Conference || SA Your Host || Public Relations || Accreditation & Registration



Updated on 02 September 2001 14:06:34 South Africa Standard Time

**ADDRESS OF THE PRESIDENT OF SOUTH AFRICA, THABO MBEKI, AT
THE OPENING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DURBAN, AUGUST 31, 2001.**

Your Excellency,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Mr Kofi Annan, Your Excellencies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Ministers and Heads of Delegation, Esteemed leaders of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President of the World Conference, the Hon Nkosazana Dlamini-Zuma,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Conference, the Hon Mary Robinson, Distinguished delegates and guests,
Members of the mass media, Friends, ladies and gentlemen:

On behalf of the people of South Africa and our government, I am privileged to join in welcoming you all to South Africa and to this historic world conference that has the potential and a responsibility to convey a message of hope to billions of people across the globe.

We have gathered as we have, because we are united in our resolve to ensure that every human being leads a life of dignity. We meet here because we are determined to ensure that nobody anywhere should be subjected to the insult and offence of being despised by another or others because of his or her race, colour, nationality or origin.

Together we are committed to the realisation of the objective that every human being should enjoy human rights as equals with other human beings, with every right and possibility to determine both their future and the destiny of their countries.

This surely means that nobody should be denied their statehood on any basis whatsoever, or turned into permanent refugees with neither the right nor the possibility to build a national home they can truly call home.

I am certain we are determined to speak with one voice to assert that no culture, language or tradition of any people is inferior, deserving of being despised, mocked and destroyed. By this means we want to make the point firmly that all peoples and all nations are mutually ;and each equally entitled to their identity and their national pride.

We have gathered in Durban because we have understood that poverty is not a natural human condition. Accordingly, it constitutes a direct attack on the human dignity of all those condemned to deprivation and are therefore forced to beg, to steal, to prostitute themselves because they are poor or those who resort to substance abuse to take away the pain of hunger and despair.

Understanding all this, we are meeting here because we have said to ourselves that since poverty is not an act of nature but the product of human society, we must as this human society, together fight and vanquish poverty and underdevelopment.

We have come together, in what some believe is a new age of reason, because we know
<http://www.un.org/WCAR/statements/3108mbeki.htm>

that the knowledge and the means exist in human society today in fact to overcome this poverty and underdevelopment.

The question that remains to be answered is what is to be done to deploy these powerful intellectual and material resources so that poverty everywhere becomes a thing of the past.

It became necessary that we convene in Durban because, together, we recognised the fact there are many in our common world who suffer indignity and humiliation because they are not white.

Their cultures and traditions are despised as savage and primitive and their identities denied. They are not white and are deeply immersed in poverty. Of them it is said that they are human but black, whereas others are described as human and white.

To those who have to bear the pain of this real world, it seems the blues singers were right when they decried the world in which it was said - if you're white you're alright; if you are brown, stick around; if you are black, oh brother! get back, get back, get back!

Your Excellencies, Distinguished delegates:

I speak in these terms, which some may think are too harsh and stark, because I come from a people that have known the bitter experience of slavery, colonialism and racism.

These are a people who know what it means to be the victim of rabid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Among us are the women who suffered most because they had to carry the additional burden of gender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Because of that experience, against whose results we continue to struggle to this day, as we will do for a considerable time to come, we also know what can be achieved when the peoples of the world unite to say no longer will they allow that another human being will suffer at the hands of another because of their race, colour, nationality and origin.

In welcoming you to South Africa, we welcome you as fellow combatants who joined us in struggle to defeat and suppress the apartheid crime against humanity.

Accordingly, I am privileged to have the opportunity as you, who represent the nations of the world, meet in this country, which not so long ago was the fountainhead of racism, once more to convey to you the immense gratitude of the millions of our people that you did not stand aside when that crime against humanity was being committed.

These masses are convinced that when you waged that protracted struggle, you did so because you were opposed to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everywhere.

They welcomed the fact that you decided to convene this World Conference here in the belief that you did so because you have confidence that we too remain an active part of the world movement determined to fight on until racism ceases to define anybody's

place in society and the world.

They were happy that you would come, because this would give us an opportunity to reaffirm in front of you all that to us slavery, colonialism and racism are fundamentally repugnant.

It would give us the possibility to pledge to the peoples of the world that we will not betray the friendship and solidarity which drove you to act against apartheid and will therefore join with you in the difficult struggle to eradicate the legacy of slavery, colonialism and racism.

Those on our common universe, who are defined by the blues singers as brown and black, expect much of this important World Conference. They believe that something will come out of here that will signify a united and sustained global drive within their countries and throughout the world to help rid them of the suffering they bear because they are brown and black.

They entertain this hope because their suffering is real and immense. And yet they can also see that there are others who are as human as they, who lead decent lives and are certain of even better lives in future, whatever other problems they experience.

Gripped by poverty, fearful of the future because they know that tomorrow will be worse than today, forced to behave towards others as though some are inferior and others superior, simply to get something to eat, many take to their feet to flee from their lands of despair, at all costs trying to reach other countries they believe have the possibility to introduce them to a life of hope.

Our common humanity dictates that as we rose against apartheid racism, so must we combine to defeat the consequences of slavery, colonialism and racism which, to this day, continue to define the lives of billions of people who are brown and black, as lives of hopelessness.

Nobody ever chose to be a slave, to be colonised, to be racially oppressed. The impulses of the time caused these crimes to be committed by human beings against others.

Surely, the impulse of our own time says to all of us that we must do everything we can to free those who to this day suffer from racism,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because their forebears were enslaved, colonised and racially oppressed.

It surely must be that this World Conference will say that, in all countries, both of the North and the South, the brown and black ghettos of poverty, despair and human degradation must no longer exist.

This World Conference will have to indicate what is to be done practically so that this call results in a changed and changing world in which all human beings actually enjoy the inalienable right to human dignity.

An important part of our legitimacy as governments derives from our commitment to serve the people. Our own experience tells us that these people whom we serve always feel pain when another, who might be a citizen of other lands, feels pain.

To these masses, human solidarity is not a foreign concept. To them, this World Conference must convey the message that the peoples of the world are inspired by a new internationalism that says that we are determined to unite in action to repair the gross human damage that was caused in the past.

It must inspire them with the knowledge that as governments, as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s countries and as peoples, we are ready now, to dedicate our minds, our skills and our resources to the creation of a new world free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It must convey a message of hope to the peoples of the world that, together, we are resolved to work hard for peace everywhere on our universe, so that the doors open everywhere for the fullest and all-round development of all human beings in conditions of freedom, safety and security.

The Middle East cries out for a just, stable and permanent peace that is long overdue. The people of Palestine, like those of Israel and everywhere else in the world, are also entitled to pursue their fullest and all-round development in conditions of freedom, safety and security.

Our own Continent of Africa also deserves peace like any other, to rescue the peoples from death and destruction and to open the doors for us too, to develop in conditions of freedom, safety, and security.

Thus will the conditions be created for us as Africans to take to the long road towards the eradication of the legacy, which is our daily companion, of slavery, colonialism and racism.

Only recently we bade farewell to a century that has visited terrible suffering to millions of people. It inflicted a terrible Holocaust on the Jewish people. It imposed a frightful genocide on the people of Rwanda. It produced criminal regimes of people demented by adherence to anti-human ideologies of racial superiority.

And yet this same century gave us a global compact in the form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 gave humanity as a whole the possibility to accumulate the knowledge and, the means to realise the noble vision contained in that document.

We have gathered in Durban to make the commitment that this we will do and, together, to decide what steps we will take to ensure what has to be done, is done.

Once more, I welcome you to this country which you helped to liberate from apartheid racism and hope that the celebration of that victory will give this World Conference the

inspiration to produce the results that will define the 21St century as the century that restored to all, their human dignity.

Thank you.



야후! - 메일 확인 - 마이 야후! - 도움말 hankook

속보 TV뉴스 뉴스앨범 경제 IT 정치 사회 세계 연예오락 스포츠 지역 생활 주간지 화제의뉴스

뉴스검색 : 검색

연합뉴스 - 동아일보 - 중앙일보 - 한국일보 - 문화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 TV뉴스 - 화제의 뉴스

속보 > 한국일보

2001년 8월15일 오후 8:21

강2

[유엔 세계인종차별회의] 초안 작성 난항, 파행 우려

3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유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WCAR)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회의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으나 식민주의와 노예제도에 대한 배상 문제와 시온주의 및 중동 문제등을 놓고 각국들이 대립, 선언문 및 행동 계획 초안 작성 작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00여개국 대표들은 지난 달 30일부터 10여일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준비회의를 열어 폐막일 채택할 선언문과 행동계획의 문안을 절충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각국 정부 관계자들은 "전체 분량의 20% 정도 밖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이는 80%의 핵심 쟁점이 사전 합의 없이 더반 회의로 넘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각국은 자국의 입장을 정리한 후 더반 회의 전까지 비공식 접촉을 하기로 했지만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중동지역 국가간의 이해 충돌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시온주의를 인종차별로 규정하거나 식민주의 및 노예제도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경우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18년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자칫 약소국들끼리 울분을 토로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대해 반인륜적 노예매매와 관련된 이익을 배상을 통해 환원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노예 매매와 관련된 과거 악행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사죄나 배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과거 식민통치의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동조하고 있다.

아랍 진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동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회의 전망을 어렵게 한다.

중동 국가들은 시온주의 문제의 경우 더반 회의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인종주의로 간주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등 이스라엘내 점령지 문제는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미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3차 준비회의와는 별도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14일 미국이 사상처음 제출한 '인종차별주의 보고서'를 심의하면서 미국의 인종차별주의와 사형제도, 경찰의 잔혹행위를 맹비난하고 나선 것도 미국정부의 심기를 자극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미국은 소수인종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지만 사형 선고자의 54%가 소수 인종출신"이라며 미국은 인종적 편견으로 사형제도가 이용되지 않도록 사형유예를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다음뉴스: [사회] 행사전 물놀이하다 어린이 4명 사망·실종

이전뉴스: [사회] 陳부총리 車등 5대 연쇄추돌

인사이드 야후!

 [생생토크 참여 / 만들기](#)
(야후! 메신저 사용)

 이 기사를 [메일로 보내기](#)

 [뉴스 게시판에 나도 한마디!](#)

[속보](#) [TV뉴스](#) [뉴스앨범](#) [경제](#) [IT](#) [정치](#) [사회](#) [세계](#) [연예오락](#) [스포츠](#) [지역](#) [생활](#) [주간지](#) [화제의누](#)

Copyright © 2001 Yahoo! Korea Corp.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2001 HanKook Ilbo. All rights reserved.

한국일보와의 합의없이 상기의 무단전재를 금합니다.